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오재우*, 문영숙**, 박인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과[†],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A Study of nurses' working stress, child-rear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

Jaewoo, Oh^{*}, Young-Sook, Moon^{**}, Insook, Park^{***}

Dept. of Nursing,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Dep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Dept.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학령전기의 자녀가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의 정도와 이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가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사의 양육태도의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피어슨 상관 계수로 분석하였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는 평균 평점이 3.48점이었으며, 간호사의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평점 2.47점이었다. 간호사의 양육태도 평균 평점은 3.61점 이었다. 업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근무장소, 월별 주말 근무횟수였으며,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아내연령, 남편연령, 총수입, 남편과의 관계 만족, 근무경력 및 자녀수, 자녀 돌보는 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r = .32, p=.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가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양육태도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간호사, 스트레스, 업무, 양육, 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working stress, child-rear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 of nurses who have preschool children.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136 nurses in three university hospital in 2011, and analyzed by the SPSS 12.0 program. Results: Nurses scored 3.48 points on average in working stress, 2.47 points in child-rearing stress, 3.61 points in parenting attitude. According to analysis on working stress depending on gener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workplace, monthly weekend duty frequency and in child-rearing stress depending on husband's age, wife's age, total income, marital period, satisfaction at relationship with husband, working career, number of children, and a person who cares for their children. According to parenting attitude depending on gener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working condition, marital period, position, working conditions, marital period, workplace, monthly weekend duty frequency. Correlations among nurses' working stress, child-rear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 nurses' working stress had significantly correlations with parenting stress. Conclusion: Results of the study provides data on nursing interventions to relieve nurses from their working stress and child-rearing stress and to promote favorable child parenting attitude

Key Words : Nurse, Stress, Work, Child Rearing, Attitude

Received 18 July 2013, Revised 15 August 2013

Accepted 20 Octo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Young-Sook Moon (Dep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Email: moon@konyang.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사회참여는 점점 늘어나 2009년 여성 경제 활동 인구는 50%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이런 현대사회의 급속한 경제적 변화와 여성의 취업률 증가, 핵가족화는 육아 및 가사활동에만 전념하던 전통적 어머니 역할에 변화를 가져왔고, 자녀 양육에 따른 책임 및 역할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높을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취업 여성들 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전문여성 인력중의 하나인 간호직은 전문직으로 직업의식이 강하고 엄격한 조직체계하에서 개인의 각자의 책임이 주어지며, 간호사는 낱일이 새로워지는 업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야 하고, 과중한 업무량 속에서 고도의 긴장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자율성의 부족, 의사 및 관계부서,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 환자와 보호자등 다양한 인간관계로의 피로감, 간호수혜자의 질적 간호요구의 증가 등으로 간호사들은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교대 근무로 인한 야근이 필수적이어서 직장 내 스트레스는 가중된다[2].

취업 모에게 있어 자녀양육은 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동시에 스트레스원[3]으로 비 취업 모에 비해 높은 자녀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특히 오늘날은 과거와 달리 양육환경이나 양육에 관한 정보가 다양해지고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은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면서 양육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렇게 증가된 양육스트레스는 부적절한 양육태도로 이어지고 있다[5].

아동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는 자녀를 부정적으로 대하게 되며, 이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손상시키고, 나아가 아동의 행동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6].

특히 영유아를 비롯한 취학 전 아동기는 아동의 성장 발달에 결정적인 시기이므로 이시기의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는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하며[7], 아동, 어머니, 환경의 요인들로 발생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을 매개로 하여 양육태도 및 양육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가 된다[8].

취업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취업관련 특성들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취업관련 특성으로는 소득이나 직종, 근무 및 출퇴근 시간, 취업의 동기와 같은 일반적 특성과 근무시간의 융통성, 직업만족도, 업무스트레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다[3, 4, 6, 9, 10]. 특히 직종이 전문직일수록, 근무시간이 길수록,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적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9].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심리적인 부담감은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약화시켜 역기능적이고 부당한 양육행동을 하게 된다[7]. 이미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강압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이며 비효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많다[4].

간호사에게 있어 자녀양육에 문제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나[11, 12] 업무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와 관련시켜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양육태도유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더 나아가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촉진하는 간호중재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양육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 지역 3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중 학력 전기의 자녀가 있는 기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각 병원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선정되었다. 유의수준 5%, 검정력 95%로 하여 표본의 크기가 134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본의 크기를 근거로 하여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한 13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업무스트레스

업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구미옥과 김매자(1984)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개발당시 간호사가 근무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 원인으로 자료 수집하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구하였다. 개발당시 요인 분석을 통해 간호사가 근무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66.3%였고, Cronbach's $\alpha = 0.94$ 로 나타났다. 도구는 업무량 4문항, 역할갈등 9문항, 업무의 책임 2문항 총 1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주 심하게 느낀다” 5점에서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한 간호업무 수행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0.87$ 이었다.

2.3.2 양육스트레스

Abidin(1990)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지수(Parenting Stress Index : PSI)의 부모 영역요인, Crnic와 Greenberg(1990)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Parenting Daily Hassles: PDH), Mann 과 Thornberg(1987)의 어머니 죄책감 정도(Maternal Guilt Scale: MGS)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배경에 맞게 김기현

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도구로 김리진(2000)이 수정 보완한 양육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 문항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 12문항,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 12문항,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 요인” 8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문항 간 내적 합치도가 낮은 2문항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는 30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식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2$ 이었다.

2.3.3 양육태도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이종승과 오성심(1982)이 개발한 양육태도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22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18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척도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 - 적대, 자율 - 통제, 성취 - 비성취, 합리 - 비합리의 4차원 8유형의 양육 태도가 있으나 자율 - 통제 문항은 신뢰도가 낮아서 하위 요인에서 제거하고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아주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평가하는 도구로 애정 - 적대는 애정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애정적임을 의미하며, 성취 - 비성취 양육태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적임을, 합리 - 비합리적 양육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합리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9$ 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루어졌다. D시 종합병원 3곳에서 각 병원의 간호부에 전화로 사전 허락을 구한 뒤 방문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학력전기까지의 자녀를 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개인 비밀 보장 및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확인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업무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 분석을 하였다.
- (3) 업무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남편 연령 35세~39세 이상 45.9%, 아내 연령은 30~34세가 68.9% 로 가장 많았고, 가족의 월수입은 500만 원 이상이 51.9%, 400만원~499만원이 34.6% 이었다. 간호사의 근무 장소는 병동이 44.4%, 특수부서가 36.1%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간호사의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교대로 근무하는 경우가 58.6%였으며, 월별 주말 근무횟수는 월 1~2회가 59.8%였다. 근무 경력은 10~15년 49.2%, 5~10년 40.2%로 나타났다.

결혼 기간은 2~5년이 46.6%, 5~10년이 41.4%였다.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여부를 묻는 질문에 만족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86%였다. 자녀수는 1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0.9%, 자녀의 연령은 12~24개월이 22.6%, 5세 이상이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 양육자는 놀이방 혹은 어린이집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거리 거주하면서 양가 부모님이 돌보아주시는 경우가 33.1%로 나타났다<Table 1>.

3.2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점점이 3.48점이었으며,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업무책임이 3.64점으로 가장 높고, 업무량이 3.57점, 역할갈등이 3.24점 순이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3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Husband age(yr)	29	7	5.3
	30 - 34	57	42.9
	35 - 39	61	45.9
	≥ 40	8	6.0
Wife age(yr)	≤29	21	15.9
	30 - 34	91	68.9
	35 - 39	18	13.6
	≥40	2	1.5
Monthly income (10,000won)	<300	4	3.0
	300-399	14	10.5
	400-499	46	34.6
	≥500	69	51.9
Location	Ward	59	44.4
	Ambulatory, Office	26	19.5
	Special part	48	36.1
Position	Staff nurse	93	70.5
	Charge nurse	28	21.2
	Head nurse or chief nurse	11	8.3
Condition of working	Day time	45	33.8
	2 Shift	10	7.5
	3 Shift	78	58.6
Condition of holiday working per month	No working	2	1.5
	1~2	79	59.8
Carrier(year)	≥3	51	38.6
	<5	7	5.3
	5-10	53	40.2
	10-15	65	49.2
Marriage during (year)	≥15	7	5.3
	<2	11	8.3
	2-5	62	46.6
	5-10	55	41.4
	≥10	5	3.8
Satisfaction with husband	Very satisfaction	15	11.4
	Satisfaction	86	65.2
	Moderate	25	18.9
	Unsatisfaction	4	3.0
No. of child	Very unsatisfaction	2	1.5
	1	81	60.9
	2	45	33.8
	3	7	5.3
	>12	9	6.8
Child age (month,yr)	12~24	30	22.6
	24~ 36	25	18.8
	3yr	26	19.5
	4yr	13	9.8
	≥5yr	30	22.5
Baby-sitter	Grand parents(live together)	22	16.5
	Grand parents(close range)	44	33.1
	Sibling, relatives	4	3.0
	Day care center in working	50	37.6
	Etc	12	9.0

간호사의 양육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평균 평점이 2.47점이었으며,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상적 스트레스가 2.7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 역할 스트레스가 2.40점, 타인 양육스트레스가 2.31점 순이었다. 간호사의 양육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이 3.61점 이었으며,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애정적 양육태도가 3.7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취적 양육태도가 3.61점, 합리적 양육 태도가 3.5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Stress of work,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s of nurses

Variable	Mean	SD	Min	Max
Stress of work	3.48	0.56	1.56	4.59
Workload	3.57	0.63	1.50	4.75
Role conflict	3.24	0.58	1.44	4.78
Work responsibility	3.64	0.74	1.50	5.00
Total parenting stress	2.47	0.41	1.65	3.68
General stress from the parenting	2.70	0.45	1.64	4.00
Guilty feeling caused by parenting from others	2.31	0.56	1.14	4.00
Burden from parenting role	2.40	0.43	1.33	4.00
Parenting attitudes	3.61	0.41	2.68	4.74
Affection	3.73	0.49	2.40	4.90
Accomplishment	3.61	0.44	2.63	5.00
Rational	3.51	0.48	2.56	4.56

3.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업무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태도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업무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업무스트레스에서는 근무 장소(p=.032)와 월별 주말 근무횟수(p=.04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에서는 남편연령(p=.000)과 아내연령(p=.012), 총수입(p=.012), 남편과의 관계만족(p=.030) 및 근무경력(p=.001), 자녀수(p=.002), 자녀돌보는 분(p=.01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양육태도에서는 양육태도 하위 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애정적 양육태도에서는 근무 조건(p=.030), 결혼 기간(p=.014)에서, 성취적 양육태도에서는 직위(p=.029), 근무조건(p=.006), 결혼기간(p=.01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합리적 양육태도에서는 근무 장

소(p=.002), 월별 주말 근무횟수(p=.02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3.4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r = .32, p=.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의 하부 요인인 일상적 스트레스(r = .32, p=.000), 타인양육 스트레스(r =.25, p=.004), 부모 역할 스트레스(r = .27, p=.002)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의 정도와 그 관계를 확인해 보았으며, 주요 결과들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48점이었고, 이 결과는 k 지역 소재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14]의 업무책임의 문항 평균 점수 3.53점과 일치하였으며, 과중한 간호 업무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 [15]의 연구결과와 유사했다.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업무책임이 3.64점으로 가장 높았고, 업무량이 3.57점, 역할 갈등이 3.24순이었다. 즉 엄격한 조직체계하에서 개개인의 각자에게 주어지는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책임 의식 및 전문직으로서 직업의식으로 인해 간호사가 느끼는 업무책임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간호사의 양육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평균 평점이 2.47점이었으며, 이 결과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2]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의 문항 평균 평점 2.47과 5~7세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17]의 연구 결과에서의 2.47점과 일치하였다.

〈Table 3〉 Differences of working of stress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Stress of work			Parenting stress		
		M	(SD)	F(P)	M	(SD)	F(P)
Husband age(yr)	29	3.36	(.41)	1.797(.151)	2.43	(.11)	7.982(.000)***
	30 - 34	3.48	(.50)		2.33	(.37)	
	35 - 39	3.44	(.62)		2.60	(.44)	
	≥ 40	3.91	(.50)		2.53	(.27)	
Wife age(yr)	≤29	3.36	(.40)	1.833(.144)	2.24	(.28)	3.787(.012)*
	30 - 34	3.47	(.56)		2.48	(.42)	
	35 - 39	3.73	(.60)		2.66	(.37)	
	≥40	3.78	(.19)		2.41	(.04)	
Monthly income (10,000won)	<300	3.43	(.53)	0.868(.459)	2.05	(.28)	3.788(.012)*
	300-399	3.49	(.61)		2.68	(.38)	
	400-499	3.59	(.46)		2.54	(.38)	
	≥500	3.41	(.61)		2.41	(.42)	
Location	Ward	3.62	(.50)	3.551(.032)*	2.44	(.46)	1.161(.316)
	Ambulatory, Office	3.37	(.44)		2.57	(.32)	
	Special part	3.38	(.65)		2.46	(.38)	
Position	Staff nurse	3.44	(.52)	1.415(.241)	2.44	(.40)	1.090(.382)
	Charge nurse	3.53	(.70)		2.49	(.40)	
	Head nurse or chief nurse	3.83	(.41)		2.70	(.60)	
Condition of working	Day time	3.44	(.52)	0.307(.736)	2.55	(.39)	1.492(.229)
	2 Shift	3.42	(.76)		2.52	(.26)	
	3 Shift	3.51	(.55)		2.42	(.43)	
Condition of holiday working per month	No working	2.50	(.65)	3.285(.041)*	2.51	(.60)	2.559(.081)
	1~2	3.51	(.53)		2.53	(.40)	
	≥3	3.47	(.58)		2.37	(.40)	
Carrier(year)	<5	3.19	(.83)	2.499(.063)	2.37	(.21)	5.684(.001)**
	5-10	3.46	(.46)		2.36	(.36)	
	10-15	3.47	(.59)		2.57	(.46)	
Marriage during (year)	≥15	3.97	(.51)	2.285(.082)	2.53	(.13)	0.966(.414)
	<2	3.43	(.39)		2.38	(.22)	
	2-5	3.53	(.48)		2.50	(.46)	
	5-10	3.39	(.64)		2.44	(.39)	
Satisfaction with husband	≥10	4.01	(.45)	0.220(.927)	2.61	(.24)	3.491(.030)*
	Very satisfaction	3.45	(.73)		2.20	(.31)	
	Satisfaction	3.48	(.54)		2.45	(.34)	
	Moderate	3.48	(.56)		2.57	(.54)	
	Unsatisfaction	3.32	(.48)		2.91	(.51)	
No. of child	Very unsatisfaction	3.76	(.05)	1.356(.261)	2.70	(.19)	6.810(.002)**
	1	3.47	(.52)		2.42	(.41)	
	2	3.45	(.62)		2.48	(.35)	
	3	3.82	(.57)		2.99	(.49)	
Child age (month,yr)	>12	3.57	(.38)	1.088(.373)	2.48	(.31)	1568(.162)
	12~24	3.58	(.53)		2.32	(.37)	
	24~ 36	3.52	(.41)		2.39	(.40)	
	3yr	3.32	(.58)		2.59	(.50)	
	4yr	3.42	(.61)		2.54	(.39)	
	≥5yr	3.67	(.55)		2.53	(.40)	
Baby-sitter	Grand parents (live together)	3.69	(.48)	1.322(.265)	2.40	(.39)	2.927(.023)*
	Grand parents(close range)	3.50	(.55)		2.33	(.37)	
	Sibling, relatives	3.62	(.41)		2.74	(.75)	
	Day care center in working	3.38	(.56)		2.58	(.39)	
	Etc	3.42	(.68)		2.53	(.42)	

<Table 4> Parenting attitud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Variables	Affection			Accomplishment			Rational		F(P)
	M	(SD)	F(P)	M	(SD)	F(P)	M	(SD)	
Husband age(yr)									
29	3.59	(.41)	0.268(.848)	3.41	(.22)	0.608(.611)	3.75	(.28)	2.064(.112)
30 - 34	3.76	(.50)		3.61	(.43)		3.56	(.51)	
35 - 39	3.72	(.52)		3.63	(.48)		3.44	(.48)	
≥ 40	3.73	(.24)		3.53	(.35)		3.42	(.28)	
Wife age(yr)									
≤29	3.64	(.41)	0.447(.720)	3.49	(.35)	0.634(.595)	3.62	(.52)	0.685(.563)
30 - 34	3.76	(.51)		3.63	(.45)		3.51	(.47)	
35 - 39	3.66	(.53)		3.63	(.52)		3.40	(.47)	
≥40	3.80	(.00)		3.44	(.62)		3.57	(.45)	
Monthly income(10,000won)									
<300	3.48	(.43)	1.844(.142)	3.28	(.40)	2.569(.057)	3.67	(.40)	1.146(.241)
300-399	3.99	(.65)		3.81	(.67)		3.74	(.63)	
400-499	3.71	(.46)		3.52	(.36)		3.47	(.42)	
≥500	3.70	(.47)		3.64	(.42)		3.48	(.48)	
Location									
Ward	3.80	(.49)	1.772(.174)	3.63	(.48)	0.184(.832)	3.65	(.45)	6.420(.002)**
Ambulatory, Office	3.59	(.49)		3.58	(.42)		3.26	(.44)	
Special part	3.71	(.48)		3.59	(.40)		3.47	(.48)	
Position									
Staff nurse	3.68	(.49)	1.611(.0190)	3.58	(.42)	3.114(.029)*	3.47	(.47)	1.906(.132)
Charge nurse	3.77	(.46)		3.56	(.42)		3.56	(.44)	
Head nurse or chief nurse	4.05	(.59)		4.05	(.60)		3.88	(.48)	
Condition of working									
Day time	3.68	(.51)	3.619(.030)*	3.68	(.47)	5.314(.006)**	3.40	(.51)	2.129(.123)
2 Shift	4.12	(.42)		3.94	(.29)		3.67	(.57)	
3 Shift	3.70	(.47)		3.52	(.41)		3.55	(.44)	
Condition of holiday working (per month)									
No working	3.20	(.57)	1.274(.283)	3.38	(.53)	0.970(.382)	2.83	(.24)	3.923(.022)**
1~2	3.73	(.49)		3.65	(.43)		3.46	(.49)	
≥3	3.76	(.49)		3.55	(.46)		3.62	(.44)	
Carrier(year)									
<5	3.66	(.42)	1.529(.0210)	3.38	(.41)	1.588(.195)	3.43	(.45)	0.358(.784)
5-10	3.63	(.49)		3.55	(.42)		3.50	(.49)	
10-15	3.82	(.49)		3.66	(.47)		3.55	(.48)	
≥15	3.77	(.42)		3.79	(.30)		3.38	(.51)	
Marriage during (year)									
<2	3.47	(.44)	3.680(.014)*	3.34	(.43)	3.780(.012)*	3.43	(.42)	1.183(.319)
2-5	3.64	(.50)		3.53	(.49)		3.44	(.50)	
5-10	3.88	(.47)		3.73	(.37)		3.60	(.48)	
≥10	3.74	(.24)		3.73	(.14)		3.51	(.26)	
Satisfaction with husband									
Very satisfaction	3.68	(.53)	0.753(.558)	3.63	(.50)	1.696(.155)	3.50	(.50)	0.729(.574)
Satisfaction	3.77	(.47)		3.61	(.39)		3.50	(.47)	
Moderate	3.68	(.57)		3.62	(.57)		3.59	(.51)	
Unsatisfaction	3.55	(.44)		3.69	(.38)		3.47	(.46)	
Very unsatisfaction	3.30	(.14)		2.81	(.27)		3.00	(.00)	
No. of child									
1	3.70	(.52)	2.612(.077)	3.56	(.45)	1.026(.361)	3.50	(.50)	0.060(.942)
2	3.83	(.41)		3.68	(.41)		3.53	(.46)	
3	3.40	(.43)		3.61	(.55)		3.51	(.44)	
Child age(month, year)									
>12	3.49	(.33)	1.378 (.229)	3.25	(.27)	1.609 (.150)	3.40	(.31)	0.470 (.830)
12~24	3.62	(.41)		3.57	(.41)		3.57	(.47)	
24~ 36	3.73	(.48)		3.56	(.39)		3.53	(.51)	
3yr	3.76	(.60)		3.65	(.52)		3.44	(.54)	
4yr	3.97	(.43)		3.76	(.36)		3.52	(.46)	
≥5yr	3.87	(.49)		3.71	(.51)		3.63	(.48)	
Baby-sitter									
Grand parents(live toether)	3.62	(.55)	1.048 (.385)	3.68	(.49)	1.584(.182)	3.44	(.46)	0.588(.672)
Grand parents(close range)	3.70	(.41)		3.51	(.34)		3.57	(.47)	
Sibling, relatives	3.78	(.32)		4.00	(.41)		3.72	(.19)	
Day care center in working	3.83	(.50)		3.62	(.46)		3.47	(.50)	
Etc	3.61	(.62)		3.63	(.54)		3.49	(.52)	

<Table 5> Correlation between working of stres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

	Work load	Role conflict	Work responsibility	Stress of work	General stress from the parenting	Guilty feeling Caused by parenting from others	Burden from parenting role	parenting stress	Affection	Accomplishment	Rational	Parenting attitudes
Work load	1.00											
Role Conflict	.49*** (p=.000)	1.00										
Work responsibility	.68*** (p=.000)	.62*** (p=.000)	1.00									
Stress of work	.85*** (p=.000)	.81*** (p=.000)	.91*** (p=.000)	1.00								
General stress from the parenting	.024** (p=.005)	.38*** (p=.000)	.21* (p=.014)	.32*** (p=.000)	1.00							
Guilty feeling Caused by parenting from others	.13 (p=.140)	.35*** (p=.000)	.17* (p=.047)	.25** (p=.004)	.55*** (p=.000)	1.00						
Burden from parenting role	.09 (p=.280)	.45*** (p=.000)	.17 (p=.054)	.27** (p=.002)	.66*** (p=.000)	.54*** (p=.000)	1.00					
parenting stress	.18* (p=.036)	.46*** (p=.000)	.22* (p=.013)	.32*** (p=.000)	.86*** (p=.000)	.85*** (p=.000)	.84*** (p=.000)	1.00				
Affection	.12 (p=.153)	-.01 (p=.910)	.07 (p=.412)	.08 (p=.391)	-.04 (p=.608)	-.01 (p=.907)	-.14 (p=.115)	-.07 (p=.425)	1.00			
Accomplishment	.12 (p=.152)	.06 (p=.513)	.09 (p=.329)	.10 (p=.231)	.07 (p=.399)	.06 (p=.513)	.05 (p=.567)	.07 (p=.418)	.74*** (p=.000)	1.00		
Rational	.10 (p=.237)	-.09 (p=.318)	.05 (p=.565)	.03 (p=.726)	-.27** (p=.002)	-.24** (p=.006)	-.30*** (p=.000)	-.31 (p=.000)	.69*** (p=.000)	.52*** (p=.000)	1.00	
Parenting attitudes	.13 (p=.124)	-.02 (p=.843)	.08 (p=.399)	.08 (p=.366)	-.10 (p=.275)	-.07 (p=.392)	-.15 (p=.075)	-.12 (p=.155)	.93*** (p=.000)	.85*** (p=.000)	.85*** (p=.000)	1.00

양육스트레스를 하부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2.7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2.40점, 타인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평점 2.31점 순이었다. 이는 [2, 16, 18]의 연구에서도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을 가장 높은 점수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보다 매일 반복되어지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더 많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매일 퇴근 후에도 가정에서 가사일 및 자녀 돌보는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느끼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은 가정에서 지속적이고 빈번히 행하고 있는 실제적 부분인데 반해,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타인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부분이며,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인해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현대사회는 전통적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대리 양육자나 기관에서 양육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부모의 만족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간호사의 경우 어머니로서 자녀양육 및 교육과 주부로서의 역할수행에 따르는 시간부족으로 인해 갈등을 느끼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며, 이에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에 더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할 수 있겠다.

간호사의 양육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이 3.61점이었으며, 이 결과는 경북 P시 유치원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19]의 연구결과 2.69점, 서울시 유치원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20]의 연구결과 3.42점보다 높았다.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애정적 양육태도가 3.7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취적 양육태도가 3.61점, 합리적 양육태도가 3.5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21]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수용적으로 자녀에게 온정적, 헌신적이며 같이 활동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경향을 펼수록 자녀는 집단에서 지도적이고 협동적이면서 이론편, 사색적인 인성을 발달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양육태도는 자녀의 행동과 태도, 성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부모는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애정적, 성취적, 합리적 양육태도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간호전문직으로서 많은 업무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에 관하여 매우 긍정적인 부모역할을 성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업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근무 장소, 월별 주말 근무횟수였다. 근무 장소에 따라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일반 병동에 근무할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병동 간호사들의 간호 수행에 있어서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들과의 높은 접촉 빈도와 연관 지을 수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들과의 다양한 인간관계, 간호 수혜자의 질적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증가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업무스트레스는 월별 주말 근무횟수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나타냈는데, 월별 주말 근무횟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자를 직접 대하는 간호사들은 책임감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에 더하여 질적, 양적으로 깊은 간호 지식과 실무를 익혀야 하고, 교대 근무에 적응해야 하므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간호사들도 직장 생활을 즐겁게 유지하며, 정서적인 안정과 직장 상사와 동료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 받을 경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감소할 것으로 여겨지며, 3교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월별 주말 근무횟수가 적어 가족 및 본인을 위한 여가활동 시간을 갖는 기회가 증가하고 정서 순환의 기회가 증가할수록 업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감소할 것

으로 사료된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아내연령, 남편연령, 총수입, 남편과의 관계 만족, 근무경력 및 자녀수, 자녀 돌보는 분야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아내의 연령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2, 22]의 결과와도 유사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연령이 높은 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은 연구 대상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모의 양육 부담이 높으며, 또한 대상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아이가 첫째 아이일수록 새로운 부모 역할과 양육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간호업무로 인하여 많은 업무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간호사로서 연령의 증가와 함께 신체적 부담감과 피로감이 가중되어 부모로서의 역할인 양육스트레스 또한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편의 연령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로 인해 남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년퇴임 및 명예퇴임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와 함께 자녀의 성장기동안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총수입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23]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궁핍은 재정적인 긴장과 우려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으므로 높은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된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300만원에서 399만원 사이의 총수입을 가진 그룹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맞벌이 부부로서 한 달 동안 총수입이 평균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좀 더 좋은 물건, 좋은 환경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또한 수입이 적당하다 하더라도 수입정도에 관계없이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스트레스는 많이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남편과의 관계 만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편과의 관계 만족과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13]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남편과의 관계 만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남은 남편과의 관계 만족으로 인해 정서적인 지지를 받음으로써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켰으리라 생각된다. 근무 경력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서는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그룹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직장생활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 및 자녀를 지속적으로 돌보아 주지 못함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현대사회에서 결혼을 하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초산의 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직장생활을 오래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첫 출산을 하는 초산모의 연령이 높아짐으로써 양육 경험의 부족 및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자녀수, 자녀 돌보는 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서는 자녀수가 1명일 때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낮았으며,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양육스트레스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탁아시설보다 아이를 형제 및 친척에게 맡길 때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돌보는 분은 탁아시설에 맡길 때보다 친척 및 형제에게 맡길 때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변화에 따른 인식의 변화로 친척 및 형제관계일수록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며, 갈등 발생 시 친척 및 형제라는 혈연관계로 인해 다 요구하지 못함으로써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양육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61점 이었다. 본 연구에서 양육태도를 하위 요인별로 나누어 일반적 특성과 함께 살펴본 결과 애정적 양육태도에서는 근무 조건($p=.030$), 결혼 기간($p=.01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취적 양육태도에서는 직위($p=.029$), 근무조건($p=.006$), 결혼기간($p=.012$)에서, 합리적 양육태도에서는 근무 장소($p=.002$), 월별 주말 근무횟수($p=.02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애정 및 관심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과 자아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며, 서로 접촉하기를 좋아하며 친밀히 대하고, 처벌이나 비난보다는 칭찬이나 격려를 많이 하며 자녀의 욕구에 민감한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근무조건이 day time 일수록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남

은 간호사의 직업 특성상 3교대를 하지 않거나 월별 주말 근무횟수가 적을수록 자녀와의 대화 및 접촉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결혼기간이 오래되었을수록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 부부보다 최신의 정보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누적되는 양육에 대한 간접 경험 및 지식 축적이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성취적 양육태도는 직위가 일반간호사보다는 관리자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직장 혹은 가정에서의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성취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역시 성취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근무조건에서는 2교대를 하는 경우가 낮 근무나 3교대를 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자들이 교대 근무를 하는 시간동안 자녀를 돌보지 못한 보상 심리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동안 모성의 책임과 자녀와 양질의 상호작용을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결혼기간이 오래되었을수록 성취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족 구성원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부모역할을 수행하며 겪는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합리적 양육태도는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외래나 특수파트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병동 근무를 통하여 얻게 되는 사회적, 심리적 보상이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상승시켜 자녀 양육역할수행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부모역할수행으로 인한 만족감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양육태도에도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월별 주말 근무횟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24시간 동안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간호사의 근무조건 융통성이 낮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월별 주말 근무횟수가 많은 경우에 합리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간호직으로서의 특수한 근무환경이 양육태도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r = .32, p=.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의 하부 요인인 일상적 스트

레스($r = .32, p = .000$), 타인양육 스트레스($r = .25, p = .004$), 부모역할 스트레스($r = .27, p = .002$)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찾아 볼 수는 없지만 업무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간호사는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영향을 받아 흥미를 상실하게 되며 위축과 소외감을 경험하고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하여 간호사 자신에게도 심한 육체적 증상이나 증후를 보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업무스트레스의 가중은 퇴근 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간호사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직장에서의 업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간호사의 자녀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역할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또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간호사 자신도 직업에 관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직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보상이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상승시켜 자녀 양육 역할 수행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자녀 양육을 스트레스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부모역할 수행으로 인한 만족으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간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최근 여성의 취업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표적 여성 전문직으로 간호사의 출산율을 높이고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직장에서의 업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 즉 근무 조건의 변화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으로 인해 경력이 풍부한 기혼간호사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이직률을 낮출 수 있으며 간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은 향상될 것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가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양육태도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대두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자녀 양육과 교육이며, 취업 여성인 간호사에게 있어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과 관련된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및 자녀 양육은 스트레스 요인이며 이직을 고려하게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업무스트레스의 가중은 퇴근 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간호사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양육 스트레스는 어린 자녀를 건강하게 성장 발달시키는데 부정적 요소로서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하므로 이를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취업 모인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업무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형성을 위한 간호중재의 개발은 취업 모 간호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일임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자가 대전시에 소재한 대학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배경을 지닌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양육태도를 측정할 때,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심도 깊은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질적 연구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간호사의 근무 부서에 따른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http://www.kostat.go.kr>.
- [2] Y. S. Kwon, Employment nurse child care and family-related variables and job stress. A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06.
- [3] L. J. Kim, Workplace child care facilities, parenting stress on working mothers to use the ecological

- study. A master's thesis, Dongduk University, 2000.
- [4] Y. S. Baek, Study on factors that effect mother's stress and guilt in raising children. A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7.
- [5] H. J. Go,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 of Ego - Resilience on the Real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 A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2005.
- [6] S. S. Kim, Study on the government female employee's stress from raising children. A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6.
- [7] Abidin, R. R.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ass. 1990.
- [8] Conger, R. D., Patterson, G. R., Ge, X., It Takes Two to Replicate : A Mediational Model for the Impact of parents' stress on Adole scent Adjustment, Vol. 66, No. 1, 1995.
- [9] M. H. Yoon, Study on the bringup stress of preschool children of working mothers and social support. A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2006.
- [10] S. G. Huh, Factors affecting fostering stress among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A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06.
- [11] J. J. Kim, & J. W. Park, Factors influencing the decisions of nurses in the stud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121, No. 3, pp. 46-59, 1991.
- [12] H. K. Jo, Study on the understanding and needs of daycare service for working mothers employed at hospital : Focused on working mothers employed at the 's' hospital located in Eunpyong-gu, Seoul. A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2001.
- [13] M. O. Gu, & M. J. kim, The analytic research about the pressure of work of the clinic n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15, No. 3, pp. 39-49, 1985.
- [14] Y. S. Kim, Nurse'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A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2010.
- [15] S. A. Ji, A Study on the Effects of Nurse's Perception of Nursing Situation as Stress on Their Coping Behaviors and Health Status, Chung-Ang journal of medicine, Vol. 11, No. 4, pp. 395-409, 1986.
- [16] S. H. Kim, Influencing factors on Parenting Stresses and among Hospital Nurses having Young children. A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2004.
- [17] H. M. Kim, Relation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2004.
- [18] B. J. Park, A Study on the Nursing Stress of Working Mothers infants. A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2006.
- [19] A. Y. Lee, Influence of Mother's Attitude on Child's Daily Stress and Their Adaptability to Kindergarten, A master's thesis, Kyoungbuk University, 2006.
- [20] Y. O.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Rearing Attitude of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and an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ir Children. A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2007.
- [21] J. H. Han, The Relationship with the human nature of the parents and Rearing attitude and school age Children, A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1980.
- [22] J. Y. Kim, A study influencing factors on Parenting Stress of working mothers. A master's thesis, Haniljahgshin University, 2003.
- [23] Howe, C. A.(1994), Single, African-American, low income mothers' child-rearing practices and stressors and their relationship to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nd peer status. Research Project, Wayne State University, Detroit, USA.

오 재 우(Oh, Jae Woo)



- 2000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2004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3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00년 3월 ~ 2012년 11월 : 건양대학 병원 간호사
- 2013 3월 ~ 현재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과 교수
- 관심분야 : 가족, 아동, 스트레스
- E-Mail : love_token@hanmail.net

문 영 숙(Moon, Young Sook)



- 1986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1989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02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1997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 부모-자녀관계
- E-Mail : moon@konyang.ac.kr

박 인 숙(Park, In Sook)



- 1975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1978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00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1978년 3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만성질환자 가족, 부모-자녀관계
- E-Mail : ispark@cnu.ac.kr